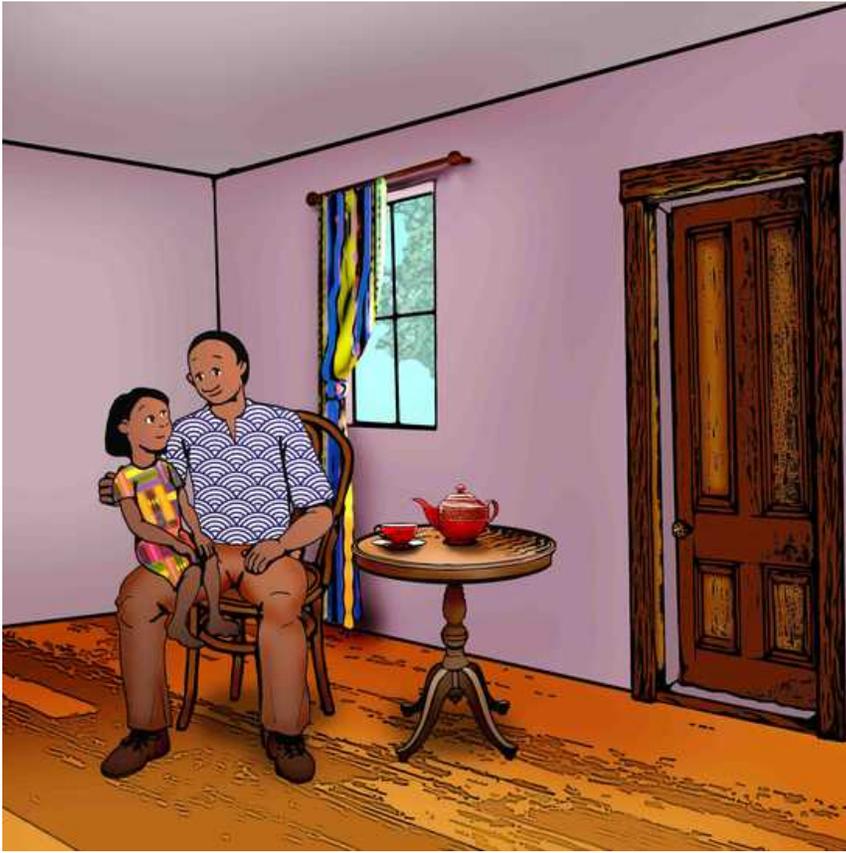




심베그위레

-  Rukia Nantale
-  Benjamin Mitchley
-  Michelle Kim
-  Korean
-  Level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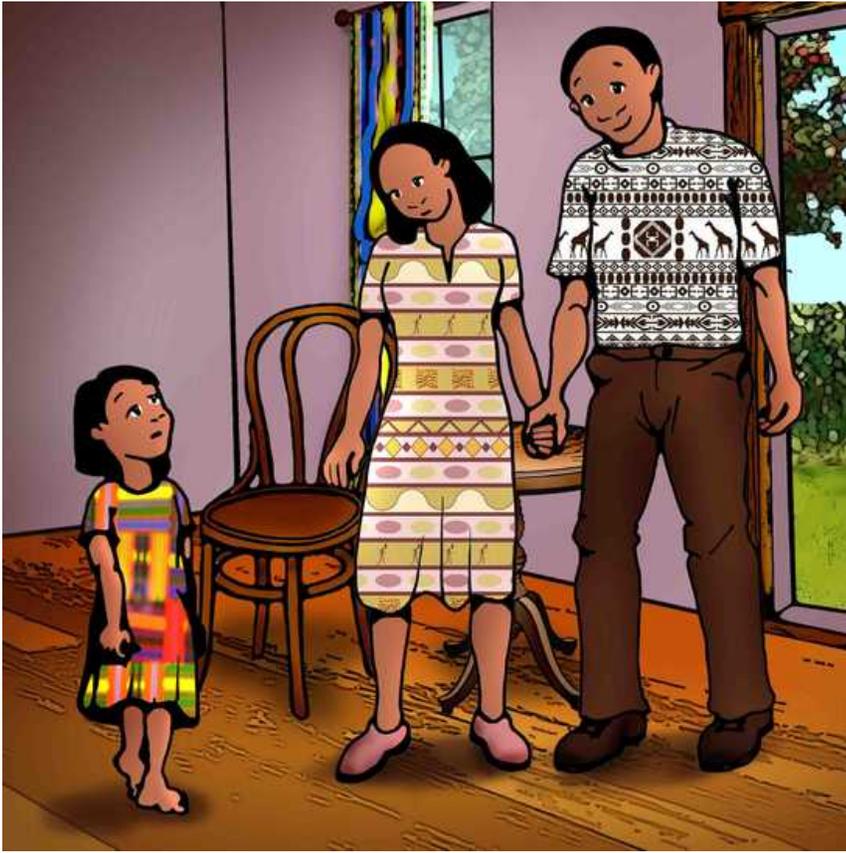




심베그위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그녀는 정말 슬펐어요.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그의 딸을 돌보려 최선을 다했어요. 천천히, 그들은 어머니 없이 다시 행복해 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그들은 앉아서 하루 일과에 대해 얘기했어요. 매일 저녁 그들은 저녁도 함께 만들었어요. 같이 설거지를 한 후,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그녀의 숙제를 도와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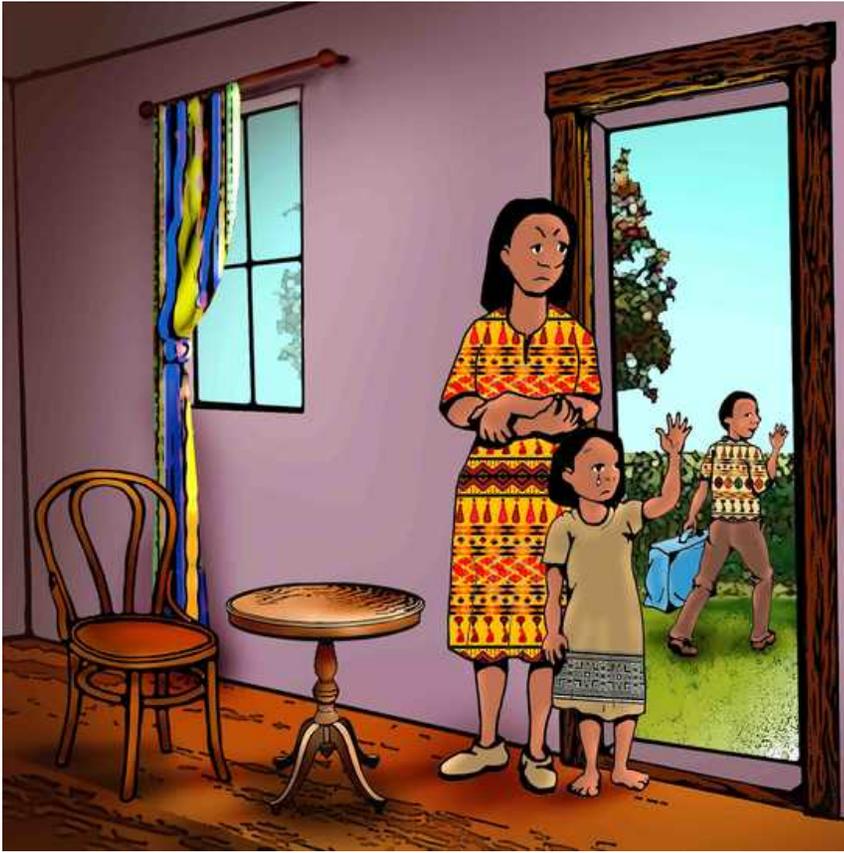
어느날,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보통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내 아이야 어딴니?” 그가 불렀어요. 심베그위레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한 여성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멈춰 서 있었어요. “나는 너가 특별한 사람을 만났으면해, 내 딸아. 이분은 아니타 라고해,”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녕 심베그위레, 너의 아버지가 너에대해 많이 얘기 해 주셨어,” 아니타가 말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웃지도, 소녀의 손을 잡지도 않았어요.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행복하고 기대됐어요. 그는 셋이서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라며 얘기했어요. “내 딸아, 나는 너가 아니타를 너의 어머니로 받아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심베그위레의 삶은 바뀌었어요. 그녀는 더이상 아침에 아버지와 같이 앉아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아니타는 심베그위레에게 엄청 많은 집안 일을 주었고, 심베그위레는 밤에 학교 숙제 하기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녀는 저녁을 먹자마자 바로 자러갔어요. 그녀의 유일한 안락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준 다채로운 담요 였어요.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불행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몇 달 후,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집을 잠시 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나는 내 직업을 위해 출장을 가야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나 딸이나 서로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심베그위레는 얼굴을 숙였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니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역시 행복하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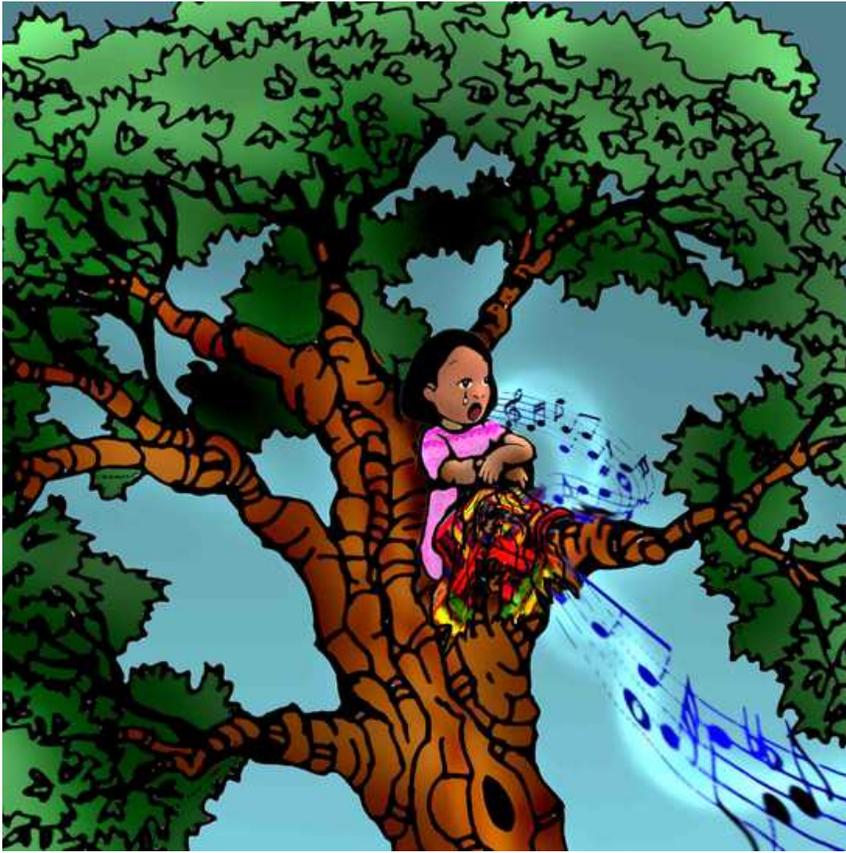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만약 심베그위레가 집안 일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그녀가 불평했을 경우, 아니타는 그녀를 때렸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때, 그 여자는 대부분의 음식을 먹었고, 심베그위레에게는 조그만 조각들만 주었어요. 매일 밤 심베그위레는 그녀의 어머니의 담요를 껴안고, 잠이 들기 전까지 울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심베그위레는 늦게 일어났어요.
“이 게으른 여자애야!” 아니타는 소리 쳤어요. 그
녀는 침대에서 심베그위레를 끌어 당겼어요. 그
귀중한 담요가 못에 걸려서, 두 조각으로 찢어졌
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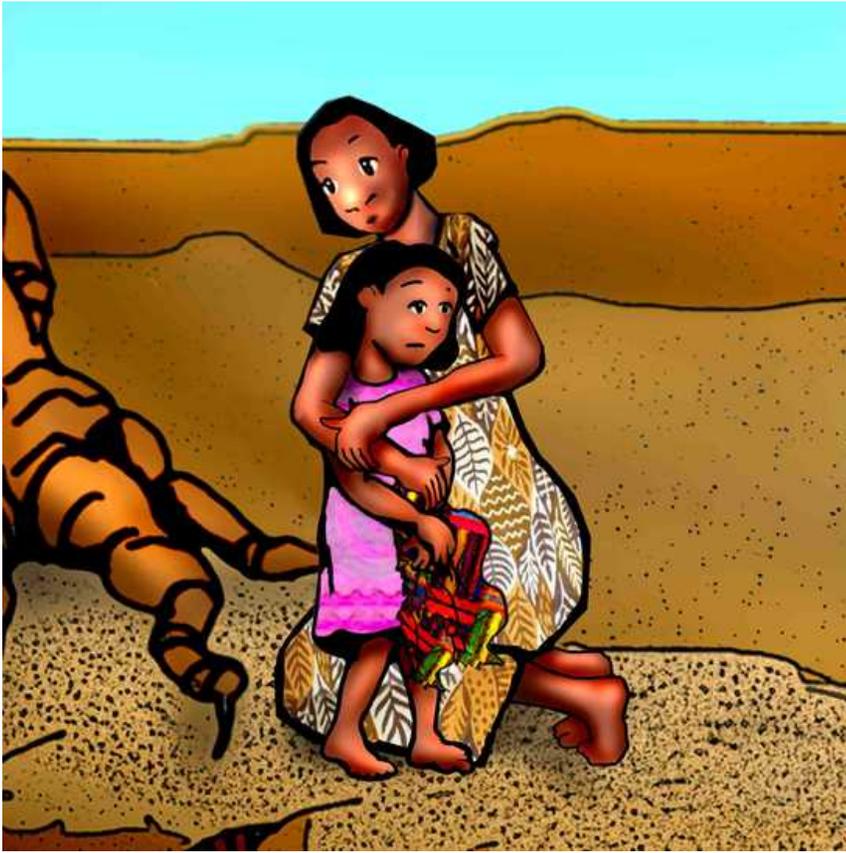
심베그위레는 매우 화가났어요. 그녀는 가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찢어진 담요를 가지고, 약간의 음식을 포장해서, 집을 떠났어요.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떠난 길을 따라 갔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그녀는 물가 근처 키가 큰 나무에 올라가 가지속에 자신의 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녀가 잠이 들었을 때, 그녀는 노래 했어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는 나를 떠났어요. 엄마가 날 떠나 돌아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엄마는 저를 떠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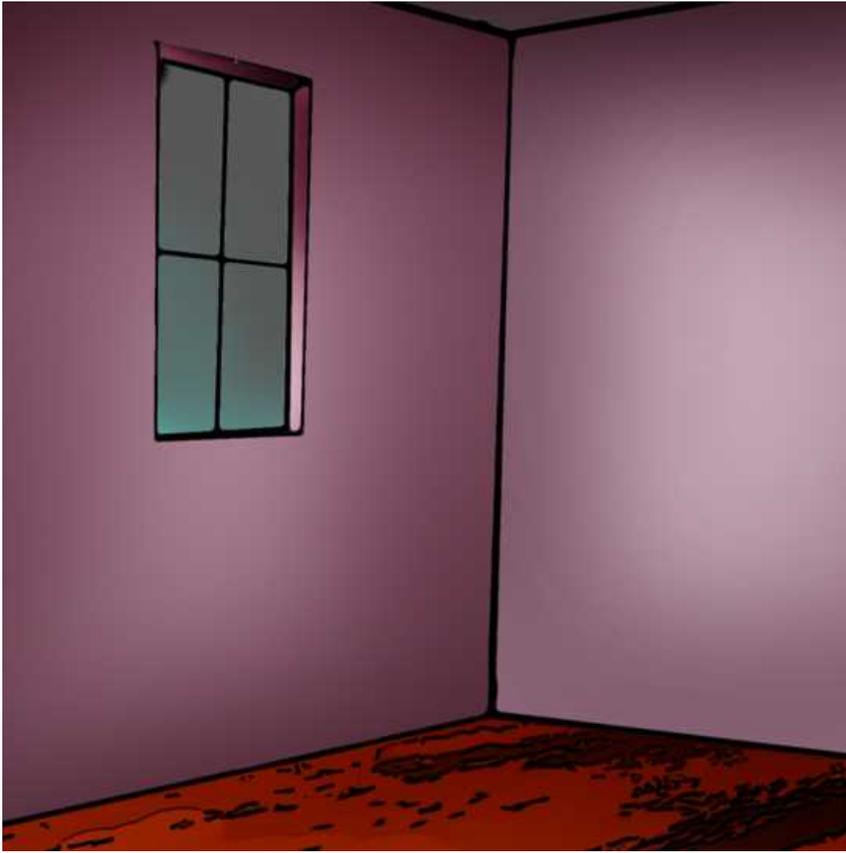
다음날 아침, 심베그위레는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여성들이 물가에 자신의 옷을 씻으러 왔을 때, 그들은 키가 큰 나무에서 나오는 슬픈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일에 다시 집중했어요. 그러나 그 여성 중 하나는 그 노래를 매우 신중하게 들었어요.



이 여성은 나무를 보았어요. 그녀가 어떤 소녀와 화려한 담요의 조각을 보았을 때, 그녀는 “내 동생의 아이, 심베그위레!” 라고 외쳤어요. 다른 여성들도 세척을 중단하고 심베그위레를 나무에서 내려오게 도왔어요. 그녀의 이모는 어린 소녀를 안아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어요.



심베그위레의 이모가 자신의 집에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녀는 심베그위레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고, 그녀를 그녀의 어머니의 담요와 함께 침대에 올려두었어요. 그날 밤, 심베그위레는 잠이 들며 울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그녀의 이모가 그녀를 돌봐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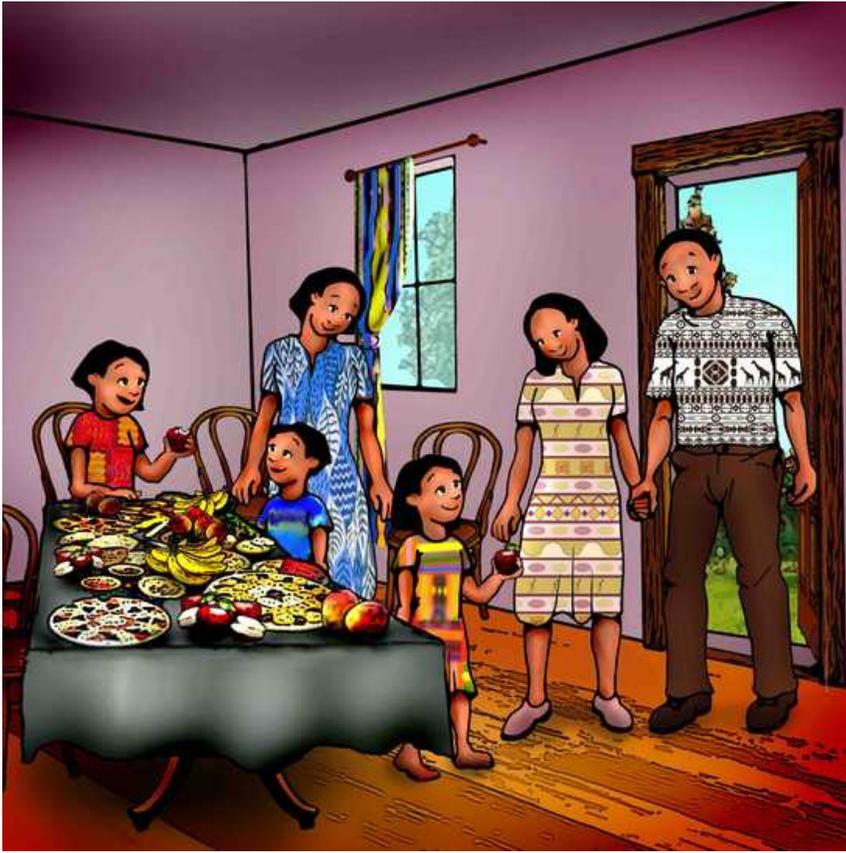
심베그위레의 아버지가 집에 돌아 왔을 때, 그는 심베그위레의 방이 빈 것을 발견했어요. “아니타, 무슨 일 있었어?”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 여자는 심베그위레가 도망 쳤다고 설명했어요. “나는 그녀가 저를 존중했으면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내가 너무 엄격했던 것 같아요.”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집을 떠나 물가를 향해 갔어요. 그는 그의 동생이 심베그위레를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여동생의 마을에 갔어요.



심베그위레의 아버지가 오고 계실 당시 심베그위레는 그녀의 사촌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화가 나 있을까봐 무서워서 집으로 달려가 숨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가서 심베그위레, “너는 너의 완벽한 어머니를 너 스스로 찾았어 라고 말했어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해 하는 사람. 난 너가 자랑스럽고 너를 사랑해.” 그들은 심베그위레가 원하는 만큼 그녀의 이모와 함께 머물 수 있다고 동의 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매일 그녀를 방문했어요. 결국에는, 아버지는 아니타와 함께 왔지요. 아니타는 심베그위레 손에게 다가갔어요. “어린 아이야,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그녀는 울었어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니?” 심베그위레는 아버지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바라 보았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다가와 아니타를 안았어요.



그 다음 주, 아니타는 식사를 위해 집에, 심베그위레, 그녀의 사촌, 그리고 그녀의 이모를 초대했어요. 아니타는 심베그위레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준비하고, 모두가 배가 부를때 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들은 놀았어요. 심베그위레는 행복하고 용감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곧, 아주 곧,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새 엄마와 살기 위해 집으로 돌아 갈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Storybooks D.C.

global-asp.github.io/storybooks-dc

심베그위레

Written by: Rukia Nantale

Illustrated by: Benjamin Mitchley

Translated by: Michelle Kim

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africanstorybook.org)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D.C.](https://global-asp.github.io/storybooks-dc)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s stories in DC's many languages.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International License](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